

대학생의 구강보건 교육경험, 지식,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수진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s on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Su-Jin Ju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K대학교 재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경우에 구강보건 지식수준과 실천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경험, 지식,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구강보건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강화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knowledge and practice on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The study subjects were 236 students of K University loca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cross-tabulation analysis,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Oral health knowledge level and practice were improved by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al experience, knowledge, and practical behavior positively influenced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reinforcement program that promotes the knowledge acquired by oral health education would enhance voluntary oral health behavior.

Keywords :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Oral Health Education, Knowledge, Practice Behavior, College Students

1. 서론

대학생은 유년기와 소년기의 습관을 바탕으로 성인기의 구강건강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는 남은 삶의 건강향

생활을 습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의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구강건강관리습관과 행위를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3]. 또한, 대학생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은 학업수행을 원

*Corresponding Author : Su-Jin Jung(Konyang Univ.)

email: winter38317@hanmail.net

Received July 7,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Revised August 2,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상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임하도록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에 대한 교육과 행동변화를 함께 유도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5].

구강건강관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행동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지며 [6], 인지된 구강보건지식은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을 유도하여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7].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구강보건지식을 교육하여 구강건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은 구강보건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인식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동의 변화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9].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을 위한 자기관리행동의 지속의지에 대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스로 구강보건행동을 실천하고 지속시키는 능력도 증가되어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10]. 또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므로 구강보건교육의 적극적인 시행은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증진과 함께 구강건강향상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속구강관리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11].

하지만, 대학생은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이므로 학생이기는 하지만 학교구강보건교육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인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강건강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12]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 스스로 구강건강을 올바르게 잘 관리하고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구강건강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13].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구강보

건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동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습관의 개선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국가구강보건사업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으로 구강보건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강화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경험과 지식 수준 및 실천행동정도가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전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네이버 오피스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대학생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자발적 참여와 익명성 및 기밀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가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KYU 2022-03-003-002)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되었다. 표본크기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정해본 결과,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통계적 검정력은 .8, 예측변수를 7개로 적용했을 때 최소 229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기입 등으로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전공의 일반적 특성 3문항과 구강보건교육경험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지식은 Shin[14]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칫솔질의 중요성과 시기,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 정기적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의 필요성, 식이조절의 인식,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6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76이었다.

2.3.2 구강보건실천행동

구강보건실천행동은 Cho와 Choi[15]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문항을 재구성하여 칫솔질, 구강관리용품사용, 정기적 치과방문, 식이조절과 관련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85이었다.

2.3.3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KaKudate 등이 개발한 The self-efficacy scale for self-care(SESS)를 압축한 도구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6,17] 이 도구는 치아관리, 식이관리, 치과검진과 관련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중앙값 10점을 기준으로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이분화 하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02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χ^2 검정)을 시행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양측 검정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버전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은 Table 1과 같으며, 보건계열 학생($p=.045$)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저학년이 20.98점, 고학년이 22.71점으로 나타나 고학년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실천행동은 고학년의 구강보건실천행동점수가 30.10점으로 저학년의 27.66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전공에 따른 구강보건실천행동은 보건계열이 29.53점으로 비보건계열의 28.36점보다 높게 나타나 보건계열 학생이 구강보건행동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3$).

Table 1.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Variable	Category	n(%)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n=164)	No (n=72)	$\chi^2(p)$
Gender	Male	111(47.0)	72(64.9)	39(35.1)	2.116(.146)
	Female	125(53.0)	92(73.6)	33(26.4)	
Grade	Lower grade(1st, 2nd)	113(47.9)	73(64.6)	40(35.4)	2.445(.118)
	Upper grade(3rd, 4th)	123(52.1)	91(74.0)	32(26.0)	
Major	Health-related	115(48.7)	87(75.7)	28(24.3)	4.015(.045)
	Non-health-related	121(51.3)	77(63.6)	44(36.4)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Variable	Category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Mean±SD	t(p)	Mean±SD	t(p)
Gender	Male	21.52±3.23	-1.684(.093)	28.46±3.52	-1.906(.058)
	Female	22.20±2.95		29.35±3.65	
Grade	Lower grade(1st, 2nd)	20.98±2.92	-4.443(<.001)	27.66±3.30	-5.484(<.001)
	Upper grade(3rd, 4th)	22.71±3.03		30.10±3.50	
Major	Health-related	22.25±3.13	1.802(.073)	29.53±3.50	2.510(.013)
	Non-health-related	21.53±3.03		28.36±3.64	

Table 3.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N=236)

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Mean±SD	t(p)	Mean±SD	t(p)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n=164)	22.96±2.48	9.525(<.001)	30.01±3.05	7.761(<.001)
	No (n=72)	19.42±2.96		26.47±3.60	

3.3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22.96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42점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구강보건실천행동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30.01점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의 26.47점보다 높게 나타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구강보건행동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실천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도 각각 1.199배와 1.3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Variable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OR	95% CI	p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3.743	1.648-8.504	.002
Oral health knowledge	1.199	1.027-1.401	.022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1.351	1.179-1.547	<.001

3.4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Hosmer &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확률 p값은 0.235이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Nagelkerke R²은 0.524로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력은 52.4%를 보였고, 모형 예측의 정확도는 80.9%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수추정치 값을 오즈비(OR)로 변환시켜 비교해 본 결과,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3.743배 증가하였으며, 구강보건 지식 및

4. 논의

본 연구는 성인기 이후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인 대학생들[2,18]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을 조사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강보건정책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은 보건계열이 구강보건교육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계열이 일

반계열보다 구강보건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19]. 이는 전공의 특성상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다양한 기관이나 매체를 통한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보건계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고학년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저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3, 4학년에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4].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로[20]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강건강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저학년에 비해 많아짐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특강이나 교양수업 등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실천행동은 고학년과 보건계열의 점수가 저학년과 비보건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Yoon과 Jang[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보건계열의 구강보건행태가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5,21]. 이는 보건계열과 일반계열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이 스케일링과 칫솔질에 대한 교육경험이 더 많고, 구강관리용품들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이다[19]. 따라서 대학생이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열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지식수준이 더 높고 행동에 대한 실천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구강보건지식수준과 실천정도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18]. 이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인식된 구강보건지식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은 대상자 스스로 동기가 유발되어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22] 대학생의 구강상태와 상황에 적합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강보건교육 동기유발프로그램의 마련이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경험, 지식, 실천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3.7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도 각각 1.199배와 1.3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인식된 구강보건지식과 행동변화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9]. 또한, 건강증진 실천의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천경험은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며 구강보건교육과 자기효능감, 실천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는 연구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2,23]. 이는 대학생이 자신들의 구강을 올바르게 자신감 있게 관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강보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구강건강관리행위와 증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적욕구가 충족될수록 증가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17,20,24].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구강보건지식수준과 실천행동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며, 구강보건교육 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가자 자신의 구강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구강상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5].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지역 대학생만을 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과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학생의 자발적인 구강건강증

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의 범위와 연구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강건강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의 추가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습관의 개선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수준과 실천행동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 지식, 실천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도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중요한 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와 성인기 이후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제언한다.

Reference

- [1] H. O. Lee, A. J. Kim, "Analysis of smoking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practice in health and non-health related major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4, No.2, pp.183-190, 2014.
- [2] J. W. Baik, H. E. Nam, J. S. Ryu, "The effects of the college students' will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playing on self-efficacy,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No.1, pp.173-183, 2012.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2.6.1.173>
- [3] J. E. Choi, Y. 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dietary habits and menu choice behavior",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15, No.6, pp.249-275, 2012.
- [4] S. U. Yoon, S. J. Jang,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1, pp.97-104, 2016.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6.7.1.097>
- [5] D. H. Lee, J. W. Yun, S. M. Lee, J. H. Lee, "Comparison of oral health knowledge, behavior and use of oral health care devices in some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27-35, 2018. DOI: <https://doi.org/10.35873/aimahs.2018.8.8.004>
- [6] A. J. Im, Y. M. Heo, H. J. Kim, H. J. Lim, "Influencing factors on oral health behavior and dental clinic use in industrial workers by Andersen model",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Vol.15, No.2, pp.235-243, 2015.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2.235>
- [7] J. R. Song, C. Y. Lim, H. S. Lee, "Relationship between work loss due to oral diseases and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mong workers", *Journal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41, No.2, pp.80-89, 2017. DOI: <https://doi.org/10.11149/jkaoh.2017.41.2.80>
- [8] J. S. Lee, H. S. Lee,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Vol.28, No.3, pp.331-346, 2004.
- [9] H. O. Lee, J. Kim, "Effects of elders'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behaviors on their quality of lif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8, No.2, pp.57-63, 2008.
- [10] S. E. Heo,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determinants of oral health practice in adults aged 20 years or old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9, pp.161-174,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9.161>
- [11] S. E. Heo, "The effects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 behavior on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in adul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5, pp.168-176,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5.168>
- [12] J. N. Lim, Y. R. Jung, "Development proposal of oral health educational media based on the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3, No.2, pp.323-334, 2013.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3.13.2.323>
- [13] M. J. Jun,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0, No.6, pp.417-424, 2010.
- [14] S. M. Shin, *A Study o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and needs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2010.

- [15] S. S. Cho, M. H. Choi, "Recognition on oral health and its care by workers in enterprising place",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5, No.1, pp.25-33, 2001.
- [16] N. Kakudate, M. Morita, M. Fujisawa, M. Nagayama, M. Kawanami, "Development of the self-efficacy scale for self-care(SESS) among periodontal disease patients", *Japan Journal of the Society of Periodontology*, Vol.49, No.4, pp.285-295, 2007.
DOI: <https://doi.org/10.2329/perio.49.285>
- [17] M. H. So, *Influencing factors on elderly's oral health level based on the social ecological model*,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18] S. I. Roh, *Recognition for the health of the mouth and behaviors on som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Korea, 2009.
- [19] S. B. Lee, J. H. Lee,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the majors of som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6, pp.509-516,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6.049>
- [20] E. J. Choi, Y. S. Song,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and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3, pp.485-493, 2012.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2.12.3.485>
- [21] Y. H. Jeong., *Between the health and non-health college students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9.
- [22] E. S. Lee et al,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Komoonsa, Seoul, Korea, pp.155-156, 2020.
- [23] Y. S. Cho, Y. J. Hwang, H. S. Bae, S. Y. Kim, "Effect of oral health education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teacher on oral health attitud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9, No.1, pp.99-108, 2009.
- [24] I. Y. Kim, S. H. Yu, "Influencing factors on oral health related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5, No.1, pp.129-135, 2015.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1.129>
- [25] S. J. Jung, "Factors related to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of the elderl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6, pp.171-180,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6.171>

정 수 진(Su-Jin Jung)

[정회원]



- 2009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2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치과임상학